

성서의 음식 규례와 오늘의 먹을거리

강성열*

1. 머리말

많은 사람들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밥상과 먹을거리 문화를 위협하는 세 가지 사건들로 뒤숭숭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첫 번째는 조류 독감(AI; Avian Influenza)이고, 두 번째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수입이며, 세 번째는 광우병 위험을 안고 있다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지혜와 과학이 창조 질서의 기초를 이루는 식물과 동물의 본성을 거슬러 생산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려다가 생겨난 것들이라는 점이다.

조류 독감이 대량 사육되는 닭이나 칠면조와 같은 가금류와 야생 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특정 목적-인체에 필요한 각종 영양분을 골고루 갖는 농작물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농작물의 대량 생산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식물에 외래 유전자, 곧 다른 종의 특정 유전자를 삽입하여 새로운 형질을 갖게 된 각종 농산물(쌀이나 콩, 옥수수, 토마토, 면화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¹⁾ 이리

*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1) 유전자 변형 식물로 가공된 각종 식품(콩기름이나 메주, 두부 등)이나 의약품 등도 이에 포함된다. 김훈기,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서울: 궁리, 2000), 170.

한 농산물이 땅과 식물과 동물 및 인간 모두에게 어떠한 유전적인 변화를 일으킬지,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생태계의 순환 구조 속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이 어떠한 돌연변이를 일으킬 것인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²⁾ 그런가 하면 광우병은 초식이 본성인 소에게 육식을 강요한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테면 곡식만으로 할 때보다 비용도 절감되고 살도 빨리 찌게 하려고 소 사료와 육골분을 곡식과 함께 먹였기 때문에 초래된 병이 바로 광우병이다.

우리의 식탁과 밥상이 이처럼 생각지 못한 사건들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올바른 음식 문화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을 살펴본다는 것은 자못 의미심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일반적인 차원에서 음식 문화가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성서의 가르침들을 중심으로 살핀 다음, 창조 세계 안에서 음식 문화가 어떠한 질서를 따라 인간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신학적인 측면에서 좀 더 깊이 논하고자 한다. 이어서 고대 이스라엘의 독특한 음식 규례를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중심으로 살핀 다음, 신약성서가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2. 인간의 삶과 음식 문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衣食住)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두 번째인 “식”(食)이다. 음식을 먹지

2) A. Kahn and F. Papillon, 『인간복제: 미래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주호 옮김 (서울: 푸른미디어, 1999), 59-60. 유전자 변형 농작물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책을 참조하라. 『오늘의 눈으로 읽는 구약성서』 (서울: 쿰란출판사, 2003), 96-109.

않고서는 인간의 삶과 생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³⁾ 사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음식은 인간의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원이요 신체의 기력을 유지, 강화시켜 주어 다양한 신체 활동을 가능케 하는 생명력의 원천이다. 예서가 비록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기는 했지만 그것을 대가로 지불하고서 떡과 꺾죽을 먹은 것은 음식이 신체의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데 필수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창 25:34). 전도서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전 10:17).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도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 만나에 싫증을 느낀 나머지, 이집트에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 음식만을 먹는데다가 고기를 먹지 않은 탓에 기력이 다하여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불평한 것(민 11:4-6)도 같은 맥락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매개로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 그를 통하여 심판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진 것도 순전히 그가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못하여 기력이 다했기 때문이었다(삼상 28:20).

구약성서의 각종 토라 규정들(레 19:9-10; 신 23:24-25; 24:19-22; 참조, 룻 2장)이 가난한 자들이 이삭줍기를 통하여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은 음식이 갖는 이러한 중요성에 근거한 것이다. 사실 가난한 자들의 음식 조달 법규는 그들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법규가 아닐 수 없다.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3) 이 점에 비추어볼 때 북한에서 “의식주”라는 표현 대신에 “식의주”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친 굶주림으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할 것이라는 저주의 메시지(신 28:53-57; 참조, 왕하 6:28-29)는 인간의 생명을 지탱하는 음식이 어느 정도까지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말씀이다.

음식은 이처럼 인간의 생명과 신체 활동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에너지원이지만, 부수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룻 3:7).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 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시 104:14-15; 참조, 전 10:19)

그 반대로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게 되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진다(시 102:4).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브니엘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삼상 1:6-7),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삼상 1:18)이 그 점을 잘 보여 준다.⁴⁾

그러나 음식의 역할은 단순히 개개인의 생명 활동과 생존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구약성서에 보면 가족이나 확대된 친족 집단의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이 성서에 자주 나타나는데(시 128:2-3; 욥 1:4-5, 13, 18), 이는 생명과 생존의 원천인 음식이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 간의 공동체 유대 관계(communal bonding) 확립과 강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암시한다.⁵⁾ 일반적으로 음식을 함께

4) 참조, Alan W. Jenks, "Eating and Drinking in the Old Testament," *Anchor Bible Dictionary* II, 251.

5) Jenks, "Eating and Drinking in the Old Testament," 250; J. F. Ross, "Meals,"

먹는 일은 친밀함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⁶⁾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시 41:9).

따라서 꼭 가족 집단이 아니라도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함께 먹어 가족이나 친족 집단에 준하는 결속력을 갖게 된다. 엘리사가 이끄는 예언자 집단(왕하 4장)이나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예언자들(왕상 18:19)이 그렇다. 그러나 가족 식사에 담겨 있는 신뢰와 유대감의 강한 이미지가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위에 인용한 시편 41:9의 하반절이 그 점을 잘 보여 준다. 아울러 아굽이 함께 먹어야 할 팔족을 장자권 매매의 대상으로 삼거나(창 25:31-34),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서 함께 식사하는 경우(창 38:23-25)도 그에 해당한다. 비록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이집트에서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창 43:32-34).

음식을 함께 먹음, 곧 밥상(식탁) 공동체의 형성은 손님-주인 관계의 기초를 이루기도 한다. 의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의 유대 관계를 외부인들, 특히 손님이나 나그네에게까지 확대시킨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그네들을 가족 식사에 초대하며,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의 가족은 이삭의 종을 매우 친절하게 대접한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역시 방문객들을 환대한다(창 19:1-3).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3, 315. 따라서 공동 식사의 거부는 분노의 표시요 친교 붕괴의 표시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도를 알고서 식사를 거부한 행동이 그렇다(삼상 20:34). J. F. Ross, "Food,"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2, 306.

6) 인류 문화 전체에 널리 퍼져 있는 함께 먹음의 사회적인 연대 기능(bonding function)은 가족들의 공동 식사 내지는 어머니의 젖먹이는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을 것이다. Jenks, "Eating and Drinking in the Old Testament," 252.

그런가 하면 밥상 공동체의 형성은 조약이나 계약을 비준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이삭과 아비멜렉(창 26:28-31), 야곱과 라반(31:51-54), 모세와 이드로(출 18:12),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수 9:3-27) 등의 사이에 조약이나 계약이 맺어지는 경우가 그렇다. 이것은 조약 내지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음식을 함께 먹어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⁷⁾ 밥상 공동체가 갖는 이러한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시내산) 계약 관계라는 신앙적이고 수직적인 차원에까지 확대되며(출 24:1-22, 특히 11절, “...그들은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더라”),⁸⁾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마지막 만찬(성만찬)에서 그것이 완성된다(마 26:20-28). 이것은 밥상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교통(communion)을 경축하며 갱신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⁹⁾

3. 창조 질서와 음식 문화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갖는 음식은 누가 주는 것인가? 창세기 1-2장의 창조 기사는 인간의 삶과 생명을 지탱하는 모든 음식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한다(참조, 왕상 17:6; 시 104:27-28).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복을 주시되, 세 가지 식물 중 두

7) D. J. McCarthy, *Old Testament Covenant: A Survey of Current Opinions* (Atlanta: John Knox Press, 1972), 30.

8)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는 유월절 식사(출 12:8-11; 43:4-6)나 토기 소산의 십일조를 함께 먹는 잔치(신 14:22-29; 26:12), 헌 제자가 자신의 이웃과 더불어 희생 제물을 먹는 화목제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레 3:1-17; 신 27:7).

9) 종말의 때에 있을 기쁨의 큰 잔치(사 25:6-8) 역시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J. Jeremias, *Jesus' Promise to the Nations* (Philadelphia: Fortress, 1982), 59-65; Ross, "Food," 306; Jenks, "Eating and Drinking in the Old Testament," 253-254.

가지, 곧 땅에서 생겨난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를 양식으로 주시며(창 1:29),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허락 하신다(창 2:16-17).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인간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인간이 양식을 필요로 하며,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식물이 땅으로부터 생산된다는 사실이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창조의 셋째 날에 땅과 바다의 분리가 이루어지자, 하나님은 그 땅에게 온갖 식물을 내라고 명하신다(1:11). 그 중에서도 세 가지 기본적인 종류가 언급된다.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등이 그렇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땅은 그 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온갖 식물을 생산해 낸다(1:12). 이로써 하나님의 식물 창조는 땅의 생산과 연결되며, 땅의 생산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하나님의 창조는 결코 땅의 생산을 배척하지 않는다.¹⁰⁾ 도리어 하나님은 생명의 터전인 땅을 생산의 기본 도구로 사용하셔서, 땅의 생산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질서에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

그뿐만이 아니다. 세 가지 종류의 식물들은 스스로 생겨나지 않고 도리어 생명의 터전인 땅에 그 뿌리를 두어, 그 땅과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아울러 그 세 가지 식물들은 동일한 땅에 생명의 기반을 뒀, 서로 간에 분리시킬 수 없는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땅에서 생겨난 온갖 식물들은 비록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는 해도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백만 가지 종류의 식물들은 제각기 그 자신의 종(species)을 따라 유기적인 전체에 속하게 된다. 이것이 곧 땅과 식물 사이에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 땅과 식물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식량의 복이 땅과 그로부터

10) C. Westermann, 『창세기 주석』, 강성열 옮김 (서울: 한들출판사, 1998), 31.

생산된 온갖 식물들과의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물론 이 점은 동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은 일련의 창조 행위를 마무리하시면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세 가지 식물들 중 첫 번째 것인 푸른 풀을 양식으로 주신다(1:30). 동물에게 주어진 이러한 음식의 복 역시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땅에서 나는 식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식물을 생산하는 땅과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음식물 공급을 통하여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간에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 있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유랑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서식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출 16:12; 시 105:40-41; 느 9:15 등),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새로운 음식물의 복,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주신 것(신 8:7-9)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야웨께서 이스라엘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은, 금, 양털, 삼 등 삶의 풍요와 관련된 각종 물품들을 주셨다고 보는 호세아의 메시지 역시 같은 맥락에 속한다(호 2:8-9). 또한 하나님은 태초에 풍요로운 에덴동산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에도 풍족한 음식물을 선물로 주실 것인데, 이스라엘의 여러 예언자들이 새 시대의 물질적인 풍요에 대하여 묘사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암 9:13-14; 호 2:14-15, 21-22; 율 3:18; 겔 47:7-12).¹¹⁾

...그 때에 과중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암 9:13-14).

11) Ross, "Food," 306.

다음에 살펴볼 이스라엘의 다양한 음식 문화와 음식 규례도 실상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에게 음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식 주권¹²⁾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4. 고대 이스라엘의 독특한 음식 규례

4.1. 식용 가능한 음식들과 다양한 음식물 금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맨 처음 인간은 식물을 음식으로 허락받았으나 (창 1:29), 홍수 이후 육식이 허락되었다(9:3). 육식을 허용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생명을 대표하는 피를 먹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9:4).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성서 시대의 사람들은 육식을 상당히 억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은 성서 시대의 가축 부족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육류를 이용할 수 있는 층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생필품을 제공하는 짐승을 죽이는 것이 비경제적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육식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만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집안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는 예외였다.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창 18:7)이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송아지 잔치(눅 15:23), 소와 살진 짐승을 잡은 혼인 잔치(마 22:4) 등이 그렇다. 물론 솔로몬 같은 지배층이나 부유층에게도 자유로운 육식은 폭넓게 허용되었다(왕상 4:23). 아모스 같은 예언자가 이를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12)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이 음식의 상실(심판)을 가져오고(신 28:21, 23; 암 4:6-10), 대적의 공격과 정복으로 굶주림과 기근을 초래한다는 말씀(렘 28:53-57; 참조, 14:1, 4-6; 애 1:11)은 하나님의 이러한 음식 주권에 기인한 것이다. Jenks, "Eating and Drinking in the Old Testament," 252.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암 6:4, 6).

드물기는 하지만 조류도 육식의 대상이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었다(출 16:13). 야생 조류의 알이나 새끼도 식용이 가능했다(신 22:6-7). 그런가 하면 물고기는 구약 시대에 식용이 드물었다. 물고기의 주요 공급원인 지중해가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통제권은 갈릴리 바다에 한정되었다. 광야유랑 도중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체류할 때의 물고기 음식을 그리워했다(민 11:5).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물고기 식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병이어의 기적(막 6:38)이 이를 보여 준다. 예수의 열두 제자들 중 적어도 네 명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마 4:18, 21; 막 1:16, 19).

식물의 경우에는 올리브와 포도가 성서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음식으로 사용되었다. 이 둘은 주로 기름과 포도주로 가공되었다. 그리고 무화과는 자연 그대로 소비된 과일 중 가장 대중적인 것이었다(사 28:4). “사과”를 뜻하는 ‘답부아’라는 지명과 인명은 사과가 식용 대상이었음을 암시한다(을 1:12; 아 2:5; 7:8; 8:5). 석류와 대추도 널리 음식으로 사용되었다(민 13:23; 20:5; 신 8:8; 을 1:12). 드물게 언급되기는 하지만 참외도 음식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사 1:8; 렘 10:5).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식용 과일들과 대조적으로 채소류는 음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었던 것 같다. 그 까닭은 팔레스타인의 기후가 다양한 채소들을 재배하기에 부적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집트의 다양한 채소들을 그리워한 것을 보면 그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민 11:5). 반면에 보리나 밀을 포함한 다양한 곡물들(cereals; 왕하 4:42-44; 겔 4:9; 사 28:25 등)은 음식으로 자주 사용되었으며,

보리와 밀로 만든 빵도 음식으로 널리 사용되었다.¹³⁾

그러나 모든 음식이 식용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맨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었으며(창 2:17),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로는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금지당하고 말았다(창 3:22-24). 그런가 하면 야위스트의 저작으로 알려진 홍수 기사의 한 본문(창 7:2-3)은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여, 식용 가능한 정결한 짐승과 그렇지 못한 부정한 짐승 사이의 구분이 비교적 오래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노아가 홍수 후에 정결한 짐승들만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사실(창 8:20)도 같은 맥락에 속한 것이다.¹⁴⁾

짐승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는 홍수 당시의 이러한 구분법은 노아 홍수 이후의 육식 허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창 9:3-4). 그러나 정결한 짐승의 고기와 더불어 피까지 먹는 행동은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권에 속한 생명이 바로 그 피에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창 9:4; 레 3:17; 7:26-27; 17:10-14; 신 12:16, 23; 15:23).¹⁵⁾

시각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야곱 이야기에 나오는 음식물 금기도 이스라엘의 독특한 음식 습관의 한 모습을 잘 보여 준다. 창세기 32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 압복 강가에서 야곱과

13) Ross, “Food,” 304-305. 더 상세한 자료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ames I. Packer, Merrill C. Tenney, and William White, Jr., 『성서대역사』, 권명달 옮김 (서울: 보이스사, 1985), 1061-1083; 박홍현, 이영남, 『떡으로 본 성서』 (서울: 수학사, 2002), 83-198.

14) Baruch A. Levine, *Leviticus*, The JPS Torah Commentary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244-245.

15) J. Milgrom, *Leviticus 17-22*,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9), 1469-1477; 정중호, “새로운 토라 해석을 위한 음식 이미지 연구,” 『신학사상』 125 (2004, 여름), 96-97.

더불어 씹음하다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결과 야콥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기 때문에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음식물 금기를 오랫동안 간직해 왔다(창 32:32).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 먹지 말라는 토라 규정도 일종의 음식물 금기에 해당한다(출 23:19; 34:26; 신 14:21).¹⁶⁾ 그런데 이 세 본문들 중 마지막인 신명기 14:21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 먹지 말라는 음식물 금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또 다른 음식물 금기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신 14:21; 참조, 레 17:15).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스스로 죽은 짐승의 고기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엄격한 이스라엘 특유의 음식물 금기는 나실인으로 바쳐질 삼손의 어머니인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강하게 적용된다. 이는 야웨의 사자가 삼손을 잉태한 그녀에게 한 말, 곧 출산 전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삿 13:4, 7)고 한 말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메시지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음식물 금기가

16) 이러한 금기는 가나안 종교의 풍습을 반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H. L. Ginsberg, “Notes on ‘The Birth of the Gracious and Beautiful.’,”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Jan. 1935), 72; U. Cassuto, *The Goddess Anat: Canaanite Epics of the Patriarchal Age*, Israel Abrahams, tran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71), 50-51; P. 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3), 232-233. 이와 관련된 참고문헌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Duane L. Christensen, *Deuteronomy 1:1-21:9*, WBC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1), 283-284.

발견되는데 에스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와 그에 대한 에스겔의 항변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남의 나라에서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되(겔 4:13), 그것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선포하게 하신다. 즉, 에스겔에게 밀과 보리, 콩과 팥,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인분 불을 피워 떡을 만들어 먹게 하셨다(겔 4:9-12). 이에 에스겔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 항변한다(겔 4:14). 에스겔의 이러한 항변은 그가 그 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음식물 금기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포로기 이후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예언자 이사야도 이와 비슷한 음식물 금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사 65:4; 66:3, 17).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음식을 거부한 것이나(단 1:5 이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IV Epiphanes)의 박해 때에 경건한 자들이 돼지고기를 먹기보다는 죽음을 택한 것(제1마카베오 1:12-63)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17) Levine, *Leviticus*, 244.

4.2. 레위기와 신명기의 음식 규례

일반적으로 어느 한 종교 집단의 음식 습관은 그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분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 특유의 음식물 금기 역시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달리 말해서 다른 민족들-특히 가나안 사람들의 혐오스런 삶의 방식-과 구별되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음식 습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한편 그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을 역할을 하여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강화시켜주었을 것이라는 얘기다.¹⁸⁾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레위기 11장(1-47절)과 신명기 14장(3-20절)에 집대성되어 있는 다양한 음식 규례이다. 아마도 이 두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던 음식물 금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한층 정교한 음식 규례로 체계화시키고 발전시켰을 것이다.¹⁹⁾

이제 좀 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 11장 본문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이와 평행을 이루는 신명기 본문을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체계화된 음식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레위기 11장 전체는 네 부분으로 나뉜다. 신명기 14:3-20과 평행을 이루는 1-23절이 식용 가능한 정결한 동물과 식용이 불가능한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고 있다면, 24-40절은 동물의 주검에 접촉하여 생겨나는 부정과 그에 대한 조치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41-45절은 기어 다니는 것들의 식용 금지와 그 신학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마지막 46-47절은 결론적인 요약 진술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레위기나 신명기 본문은 과일이나 채소 같은 식물을 식용 불가능한 음식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오로지 육류만 식용

18) Levine, *Leviticus*, 244; John E. Hartley, *Leviticus*, WBC (Dallas: Word Books, 1992), 163; Erhard S. Gerstenberger, *Leviticus: A Commentary*, OTL, Douglas W. Stott, tran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134; 김형근, “종교에서 음식의 역할에 대한 일고찰,” 「건양논총」 14 (2005), 230.

19) Philip J. Budd, *Leviticus*, NCBC (Grand Rapids: Eerdmans, 1996), 161-162.

가능한 정결한 동물과 그렇지 않은 부정한 동물로 다루고 있다. 그 까닭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에덴동산에서의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제외하면, 땅에서 생겨난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가 인간에게 음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창 1:29). 바로 앞 단락에서 다룬 음식물 금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식물이 아니라 오로지 동물(육류)만이 식용이 금지되는 음식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동물의 정결함(식용 가능)과 부정함(식용 불가능)을 결정 짓는 요소들 중에서 동물들이 음식물을 소화하는 방식과 동물들이 움직이는 방식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⁰⁾

이 두 가지 핵심 요소들에 근거하여 레위기 11장 2-23절(편의상 도입부인(1절=신 14:3)²¹⁾은 제외함과 신명기 14장 4-20절의 음식 구분법을 각 동물들의 생활 공간(육지, 수중, 하늘 등)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육상 동물(레 11:2-8; 신 14:4-8)
- (2) 어류(레 11:9-12; 신 14:9-10)
- (3) 조류(레 11:13-19; 신 14:11-18)
- (4) 날아다니는 곤충들(레 11:20-23; 신 14:19-20)

먼저 육상 동물의 경우를 보면, 식용이 가능한 육상 동물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들에 한정된다(레 11:2-3; 신 14:6).²²⁾ 이에겐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

20) Levine, *Leviticus*, 246.

21) 신명기 14:3에서 “가증한 것”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낱말은 ‘토에바’이다(레위기에서는 ‘쉐케츠’라는 낱말이 사용됨). 이 낱말은 신명기에서 매우 자주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관습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데, 이는 아마도 식용이 허용된 짐승과 식용이 금지된 짐승의 목욕이 그러한 생활양식과 모종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Victor P. Hamilton, 『오경 개론』, 강성열, 박철현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542.

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불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 등이 포함된다(신 14:4-5). 그러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동물은 식용 가능한 정결한 짐승에 들지 못한다. 이를테면 낙타와 사반과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레 11:4-6; 신 14:7), 그리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못하므로(레 11:7; 신 14:8) 식용이 불가능한 부정한(‘타메’) 동물로 간주된다.²³⁾ 이들 부정한 동물들은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주검도 만져서는 안 된다(레 11:8). 그런가 하면 신명기 14장에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레위기 11장은 부수적으로 네 발로 다니는 짐승들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사나운 육식성 동물들(27절)²⁴⁾과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29-31, 41-43절)²⁵⁾도 식용이 불가능한 부정한 동물로 간주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이나 바다, 호수나 연못, 웅덩이 등 온갖 종류의 물속에서 사는 수중 생물, 곧 어류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정상적인²⁶⁾ 물고기만 식용이 가능하다. 물고기의 일반적인 특징인 지느러미와 비늘을 갖지 못한 물고기는 가증한(‘쉐케츠’) 것이요 혐오해

22) 새김질은 식물물을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소화시키는 행동을 가리킨다. G.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9), 172; Hartley, *Leviticus*, 157.

23) 돼지와 관련된 팔레스타인과 바벨론, 이집트, 히타이트 등지의 제의적인 맥락들은 다음을 참조하라. R. de Vaux,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Damian McHugh, trans. (Garden City: Doubleday, 1971), 252-269; Christensen, *Deuteronomy 1:1-21:9*, 292.

24) Budd, *Leviticus*, 175-176.

25) 이들은 대부분이 가나안 종교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 Jirku, “Lev. 11:29-33 im Licht der Ugarit-Forschung,” *ZAW* 84 (1972), 348.

26) Mary Douglas,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6), 55. 반면에 메이스는 이방 종교와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올브라이트는 위생상의 문제점을 주장한다. A. D. H. Mayes, *Deuteronomy*, NCBC (Grand Rapids: Eerdmans, 1981), 241; W. F. Albright, *Yabweh and The Gods of Canaan: A Historical Analysis of Two Contrasting Faiths* (Winona Lake: Eisenbrauns, 1994), 155.

야 할 것이기에,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주검도 가증히 여겨야 한다(레 11:9-12; 신 14:9-10). 세 번째로 하늘을 나는 조류의 경우에는, 독수리와 솔개를 포함한 20가지 종류의 새들이 식용 불가능한 동물로 간주된다(레 11:13-19; 신 14:11-18). 이 20종류의 새들이 부정한 동물들로 분류되는 이유는 아마도 그것들이 주로 사나운 맹금류로서 씹은 고기를 먹는 식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²⁷⁾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충 종류의 경우에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대부분의 곤충들이 새들과 구별되지 않는 변칙적인 것들이라는 점에서 혐오해야 할(‘쉐케츠’) 식용 불가능한 부정한 동물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종류, 곧 새들과 명백하게 구별되는 메뚜기 종류와 베짖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와 팔중이 종류는 식용이 가능한 정결한 곤충들로 분류된다(레 11:20-23; 신 14:19-20; 세레 요한, 마 3:4; 막 1:6).²⁸⁾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부정한 동물들의 주검은 그것을 만지는 자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나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함을 피하지 못한다(레 11:24-28).²⁹⁾ 식용 가능한 정결한 동물들의 주검도 예외는 아니다(레 11:39-40). 그리고 땅에 기어 다니는 길짐승들 중 두더지와 쥐, 도마뱀 등을 포함하는 여덟 종류 부정한 동물들의 주검을 만지는 자도 부정해지며,³⁰⁾ 이 부정한 동물들의 주검이 각종 가재 도구에 떨어져서 닿으면

27)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174-175; Budd, *Leviticus*, 167, 170-171; Hartley, *Leviticus*, 159; Levine, *Leviticus*, 68; Christensen, *Deuteronomy 1:1-21:9*, 292; 김중은, 『설교자를 위한 레위기 연구: 거룩한 길 다니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1), 91.

28) 참조,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175; Budd, *Leviticus*, 172-173.

29)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몸을 씻는 정결 의식(레 17:15; 22:6) 역시 이에 포함될 것이다. D. P. Wright, *The Disposal of Impurity: Elimination Rites in the Bible and in Hittite and Mesopotamian Literature* (Atlanta: John Knox Press, 1987), 220-222; J. Milgrom, *Leviticus 1-16*,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1), 667; Budd, *Leviticus*, 174.

그것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정하여진다. 그 가재 도구 안에 담겨 있는 것들 역시 부정함을 피하지 못한다(레 11:29-38). 다만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³¹⁾와 심을 물기 없는 종자(dry seed for sowing)³²⁾의 경우에는 예외이다(36-37절).

학자들은 이상에서 살핀 이스라엘의 독특한 음식 규례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전 1세기 사람인 이집트의 아리스테아스(Aristeas)의 인용문 속에 반영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음식 규례가 신앙 윤리에 근거한 것이라는 견해³³⁾가 있는가 하면, 모양이 혐오스러운 것들을 식탁에 올리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고,³⁴⁾ 이방 종교와 관련된 동물들을 식용 가능한 음식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³⁵⁾ 아니면 부정한 동물들이 어떤 형태로

30) 이들은 대부분이 육식성이거나 썩은 고기를 먹는 것들로 알려져 있다. Hartley, *Leviticus*, 161.

31) 이들이 부정한 동물들의 주검으로 부정해지지 않는 것은 생명 유지의 가장 소중한 수단인 물이 정결함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이요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Levine, *Leviticus*, 65; Hartley, *Leviticus*, 162.

32) 곧 심을 메마른 씨앗은 물과 마찬가지로 생명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오염되지 않는다. Budd, *Leviticus*, 178. 반면에 물기를 머금은 씨앗은 역설적이게도 도리어 그 물기 때문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Levine, *Leviticus*, 65, 71

33) 이를테면 정결한 동물은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부정한 동물은 죄인들을 가리킨다거나, 피의 섭생을 삼가는 것은 피 흘림에 대한 공포를 사람에게 주입시킴으로써 인간의 폭력적인 본성을 길들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그렇다.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168-171; Hamilton, 『오경 개론』, 345. 레위기와 신명기의 음식 규례가 무자비한 짐승 도살을 억제하고 식용 가능한 동물들의 수를 줄여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밀그롬의 견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J. Milgrom, *Studies in Cultic Terminology and Theology* (Leiden: Brill, 1983), 104-118.

34) 한 문명권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문명권에서 정결하게 여겨질 수도 있으므로 이 견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정중호, 『레위기』, 200.

35) M. Noth, *The Laws in the Pentateuch and Other Studies*, D. R. Ap-Thomas, tr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56; *Leviticus: A Commentary*, OTL, J. E. Anderson, trans. (London: SCM Press, 1977), 92. 그러나 황소처럼 이방 종교에서

든 병의 매개체가 되어 인체에 나쁘거나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위생학적인 견해를 내세우는 학자도 있지만,³⁶⁾ 근래에는 자기가 속한 동물 집단의 특징들을 온전히 갖춘 동물들 내지는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동물들과 자기 종의 중요하거나 뚜렷한 특징이 없는 동물들-변칙적이거나 예외적인 동물들-내지는 야생의 폭력적인 동물들을 구별하려는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⁷⁾

이상의 모든 견해들 중 어느 것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지만 이들을 종합해 보면,³⁸⁾ 레위기와 신명기의 음식 규례는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 나라와 구별시켜 출애굽 해방을 이루신 하나

사용되는 동물이 식용 대상이 되는 것은 이 견해로 설명되지 않는다.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167.

- 36) 낙타가 오늘날에도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비위생적인 것들조차도 요리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견해에는 한계가 있다. J. Simoons, *Eat Not This Flesh: Food Avoidance in the Old World*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1961), 37ff;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167-168.
- 37) Mary Douglas, *Implicit Meanings: Essays in Anthropolog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5), 266, 284; “The Forbidden Animals in Leviticus,” *JSOT* 59 (1993), 3-23; *Leviticus as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134-175.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동물들이야말로 정결한 것이라는 견해도 같은 범주에 속할 것이다. E. Firmage, “The Biblical Dietary Laws and the Concept of Holiness,” J. A. Emerton, ed., *Studies in the Pentateuch* (Leiden: Brill, 1990), 177-208. 가축용 육상 동물과 새들, 물고기 등이 식용 가능한 동물로 언급되며, 정결한 동물은 일반적으로 초식 반추 동물이지만, 모든 부정한 동물은 육식 동물이라고 보는 레빈의 사회종교적인(socio-religious) 해석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Levine, *Leviticus*, 247-248; Budd, *Leviticus*, 159. 그러나 더글라스의 견해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신 것에 대해서, 즉 창조 세계의 완전함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비록 더글라스가 비육식성의 약한 짐승들이 인간 사회에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주변자적인 존재들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하지만 말이다. Hamilton, 『오경 개론』, 347.
- 38) 휴스턴은 모든 견해들을 종합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야웨 유일신 신앙에 합치되는 동물들, 곧 야웨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동물들이야말로 정결한 것들이라고 본다. W. Houston, *Purity and Monotheism* (Sheffield: JSOT Press, 1993).

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은 성민(聖民)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레 11:44-45; 18:3; 20:24, 26). 정결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부정을 멀리하게 만드는 이러한 두 본문의 독특한 음식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고, 온전함과 완전함을 특징으로 갖는 거룩함을 성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³⁹⁾

5. 신약 시대의 새로운 음식 규례: 사랑의 법

이상에서 살핀 구약 시대의 복잡한 음식 규례는 신약 시대의 기독교에 와서 거의 철폐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는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발견되는데 구약 시대의 음식 규례가 철폐된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로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는 다양한 음식물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 세계가 완전히 구속함을 받게 되는 새로운 질서를 아울러 시작하셨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러한 구속 사역을 생태학적인 언어로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⁴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39) Hartley, *Leviticus*, 144-145.

40) 본래는 맨 처음 인간인 아담의 범죄로 인한 땅의 저주(창 3:17-18)에서 해방을 뜻하지만, 본문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본다면 단순히 땅의 회복을 넘어서서 피조 세계 전체의 회복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ohn Murray,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4), 303; James D. G. Dunn, *Romans 1-8*, WBC (Dallas: Word Books, 1986), 469-471.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⁴¹⁾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롬 8:19-23).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구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 까닭에 동물들을 식용 가능한 정결한 것들과 식용 불가능한 부정한 것들로 나누는 것 자체가 불필요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태초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들로 이해되었다. 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떡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비난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다음의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⁴²⁾(막 7:15-16, 18-19).

신약 시대에 이르러 구약 시대의 음식 규례가 철폐된 두 번째 이유

41) 피조 세계 전체의 탄식과 고통은 그들에게 닥친 죽음과 허무함에 대한 것(death pangs)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구속)을 목전에 둔 출산의 진통(birth pangs)을 가리킨다. Murray, *The Epistle to the Romans*, 305.

42)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행동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정결함 자체의 문제와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와 관련된 음식물 전체의 문제로 관심 영역을 확대시켜 답을 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는 마가의 설명은 더는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는 마가 공동체, 초기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William L. Lane, *The Gospel of Mark*,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4), 255-256; Robert A. Guelich, *Mark 1-8:26*, WBC (Dallas: Word Books, 1986), 378.

는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셨다는 데 있다 (엡 2:11-21, 특히 14-16절).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고넬료 이야기와 예루살렘 공의회이다. 먼저 고넬료의 이야기(행 10장)를 보도록 하자. 가이사라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2절)하던 이방인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그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욥바로 보냈다.

이튿날 베드로는 점심 무렵에 기도하던 중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의 식용 가능한 정결한 음식과 식용 불가능한 부정한 음식이 섞여 있는⁴³⁾ 큰 그릇, 곧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12절)이 들어 있는 한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자신이 식용 불가능한 부정한 음식, 곧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은 적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을 재차 듣는다(14-15절).

이런 일이 세 번 반복된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난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고넬료를 찾아갔으며,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앞에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고 말한다(28-29절).⁴⁴⁾ 고넬료에게 전후 상황을 전해 들은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설교를 들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43) F. F. Bruce, *The Book of the Act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4), 218.

44) 베드로의 이 말은 그가 부정한 음식을 금하는 구약 시대의 음식 규례와 초기 기독교의 이방인 교제 금지 사이에 유비(analogy)가 있음을 금방 통찰하였음을 의미한다. Bruce, *The Book of the Acts*, 222.

(44-45절).

이상의 고넬료 이야기(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11:1-18에서 거의 그대로 반복 서술됨)는 식용 가능한 정결한 음식과 식용 불가능한 부정 한 음식을 엄격하게 구별하던 구약 시대의 음식 규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하나의 표지로 이해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으며, 정결한 음식과 부정 한 음식 사이의 구별이 사라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도 무너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이 국경과 민족의 경계 선을 넘어서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35절)에게 보편적으로 임하게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예루살렘 공의회(행 15장)는 바로 이 점을 재차 확인하면서 정식으로 승인한 회의라 할 수 있다.⁴⁵⁾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고하자, 일부 바리새파 신자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5절)고 주장하여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 내부의 갈등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라 차별하지 아니하셨다”(9절)는 베드로의 설교-고넬료 이야기에 근거하여 정리되고 베드로의 이방인(고넬료) 구원 체험에 공감한 주의 형제 야고보의 제안을 따라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29절)고 권고하여 마무리된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공동의 식탁에서 만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던⁴⁶⁾ 초기 기독교-예루살렘 공의회-의 이러한 결정은 크게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9절), 다른 하나는 모든 음식물 중에서 단지 우상의 제물과 피만 멀리하면 된다는 가르침(20,

45) 사도행전의 구조에 비추어볼 때 첫 이방인 선교에 해당하는 고넬료 이야기는 이방인 선교를 정식으로 승인하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예견하고 있다. Johannes Munck, *The Acts of the Apostles*, AB (Garden City: Doubleday, 1981), 96.

46) Munck, *The Acts of the Apostles*, 140.

29절이다. 이 두 가지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이야기와 뚜렷한 평행을 이루고 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갈 3:28)임을 강조하며, 청년 디모데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므로 예전에 식용이 금지되었던 음식물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한다(딤후전 4:3-5; 참조, 갈 2:11-13⁴⁷); 골 2:16).

이상에서 보듯 구약 시대의 복잡한 음식 규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음식물을 선택하고 거룩한 것으로 보는 복음 메시지로 극복되어, 모든 기독교인은 까다로운 음식 규례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음식 규례도 예외가 아니다. 바울은 어떤 음식물이든 그 자체로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가르치되, 이미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약한 자들⁴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롬 14:13-21, 특히 15절과 20-21절; 15:1-2; 고전 8:7-13; 10:23-33). 이른바 사랑의 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식사 습관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47) 예루살렘 공의회(행 15장)의 결정이 내려진 후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다가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고집하던 자들이 오자 그들의 비난이 두려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바울은 그의 행동을 외식, 곧 위선으로 규정하는 바, 확신이 결여된 그의 행동은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만들었다. Herman N. Ridderbos, *The Epistle of Paul to the Churches of Galatia*,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4), 95-97. 그러나 브루스는 갈라디아서가 예루살렘 공의회 직전에 기록되었다는 견해를 취한다. Bruce, *The Book of the Acts*, 298-301.

48) 약한 자들은 그 자체로서 부정한 음식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롬 14:20)을 모르고 있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바울은 여기서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인식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Murray, *The Epistle to the Romans*, 189.

6. 맺음말

앞서 살핀 것처럼 음식은 인간 개개인의 생명과 신체 활동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면서 동시에, 밥상(식탁) 공동체 내지는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 간의 공동체 유대 관계를 확립시키고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경축하며 갱신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인간의 삶과 역사에서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양한 음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임이 분명하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음식 문화와 음식 규례는 사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에게 음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식 주권에 기초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온갖 음식을 섭취하였지만, 그들만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음식물 금기도 가지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 규례이다. 식물을 제외한 온갖 음식을 식용 가능한 정결한 동물과 식용 불가능한 부정한 동물을 나누고 있는 이 두 본문은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목표로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음식 규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이러한 음식 규례조차도 예수께서 이루신 만물-인간과 피조 세계 전체를 포함하는-구속의 대역사 속에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통하여 발전적으로 극복된다. 그 결과 온갖 종류의 음식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는 전통적인 음식 규례가 필요 없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장벽도 무너져 내리게 되었으며,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의 음식 주권을 확신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식사 습관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다는 사랑의 법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새로운 음식 규례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상의 논의에서 오늘의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무엇

보다도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만물의 창조자시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식 주권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과 믿음에 기초하여 우리는 항상 정해진 때에 적절한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음식에 대한 탐욕과 과식, 특정 음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금물이다.⁴⁹⁾ 그것은 영양의 균형을 무너뜨려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정 식량 자원의 고갈을 초래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막 8:36-37)는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올바른 음식 섭취를 통하여 신체의 건강을 이루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가능한 한 모든 음식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먹도록 힘써야 한다. 식품 산업의 발달은 인공적인 화학 물질이나 첨가물을 사용하여 식품의 성분을 분리하고 정제하고 재조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의 자연성과 생명력을 해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⁵⁰⁾ 아울러 하나님께서 온갖 식물과 동물을 종류별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의 근원인 땅과의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유전자 조작이나 변형을 통하여 새로운 품종과 새로운 식품을 함부로 만들고자 하는 과학 기술의 불안한 행보에 맞서 하나님의 천연 음식 주권을 지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균형 잡힌 식사 습관을 정착시

49) 한 예로 암(癌)이라는 글자를 보면, 한 개의 입으로는 모자라서인지 세 개의 입(品)으로 산(山)처럼 많이 먹어서 오는 병(疔=역)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과식과 지나친 편식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초래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몸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박기수, 『성서의학』 (서울: 새로운 사람들, 2002), 150.

50) 참조, 박홍현, 이영남, 『떡으로 본 성서』, 260-263.

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의 자연성과 생명력을 지키며 육적인 양식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그 말씀을 섭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이 날마다 섭취하는 떡(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신 8:3). 하나님의 말씀을 꿀(시 119:103; 겔 3:1-3)이나 정한 음식(욥 23:12), 젓(벧전 2:2) 등의 다양한 음식물에 비교하는 성서 기자들의 표현 방식이 단지 수사학적인 미사여구(美辭麗句)만은 아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처럼 섭취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도 적절한 음식물 섭취를 통한 건강 증진 못지않게 중요한 일임을 간과하지 못할 것이다.

<주요어>

음식, 밥상 공동체, 공동체 유대 관계, 음식 문화, 음식 규례, 음식물 금기,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음식 주권, 사랑의 법

<Key Words>

food, dining community, communion with God, food culture, dietary laws, food taboos, edible clean animals, inedible unclean animals, food sovereignty of God, law of love

참고문헌

- 강성열, 『오늘의 눈으로 읽는 구약성서』, 서울: 쿰란출판사, 2003.
- 김중은, 『설교자를 위한 레위기 연구: 거룩한 길 다니리』, 서울: 한국성서학 연구소, 2001.
- 김형곤, “종교에서 음식의 역할에 대한 일고찰,” 「건강논총」 14 (2005), 217-231.
- 김훈기,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서울: 궁리, 2000.
- 박기수, 『성서의학』, 서울: 새로운 사람들, 2002.
- 박홍현, 이영남, 『떡으로 본 성서』, 서울: 수학사, 2002.
- 정중호, “새로운 토라 해석을 위한 음식 이미지 연구,” 「신학사상」 125 (2004, 여름), 93-119.
- Bruce, F. F., *The Book of the Act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4.
- Budd, Philip J., *Leviticus*, NCBC, Grand Rapids: Eerdmans, 1996.
- Cassuto, U., *The Goddess Anath: Canaanite Epics of the Patriarchal Age*, Israel Abrahams, tran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71.
- Christensen, Duane L., *Deuteronomy 1:1-21:9*, WBC,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1.
- Craigie, P. C., *The Book of Deuteronomy*,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3.
- De Vaux, R.,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Damian McHugh, trans., Garden City: Doubleday, 1971.
- Douglas, Mary, “The Forbidden Animals in Leviticus,” *JSOT* 59 (1993), 3-23.
- Douglas, Mary, *Implicit Meanings: Essays in Anthropolog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5.
- Douglas, Mary, *Leviticus as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Douglas, Mary,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6.
- Dunn, James D. G., *Romans 1-8*, WBC, Dallas: Word Books, 1986.
- Firmage, E., “The Biblical Dietary Laws and the Concept of Holiness,” J. A. Emerton, ed., *Studies in the Pentateuch*, Leiden: Brill, 1990, 177-208.

- Gerstenberger, Erhard S., *Leviticus: A Commentary*, OTL, Douglas W. Stott., tran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 Ginsberg, H. L., “Notes on ‘The Birth of the Gracious and Beautiful’,”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Jan, 1935), 72 (postscript).
- Guelich, Robert A., *Mark 1-8:26*, WBC, Dallas: Word Books, 1986.
- Hamilton, Victor P., 『오경 개론』, 강성열, 박철현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 이제스트, 2007.
- Hartley, John E., *Leviticus*, WBC, Dallas: Word Books, 1992.
- Houston, W., *Purity and Monotheism*, Sheffield: JSOT Press, 1993.
- Jenks, Alan W., “Eating and Drinking in the Old Testament,” *ABD II*, 250-254.
- Jeremias, J., *Jesus’ Promise to the Nations*, Philadelphia: Fortress, 1982.
- Jirku, A., “Lev. 11:29-33 im Licht der Ugarit-Forschung,” *ZAW* 84 (1972), 348.
- Kahn, A. and Papillon, F., 『인간 복제: 미래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주 호 옮김, 서울: 푸른미디어, 1999.
- Lane, William L., *The Gospel of Mark*,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4.
- Albright, W. F., *Yabweh and The Gods of Canaan: A Historical Analysis of Two Contrasting Faiths*, Winona Lake: Eisenbrauns, 1994.
- Levine, Baruch A., *Leviticus*, The JPS Torah Commentary,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Mayes, A. D. H., *Deuteronomy*, NCBC, Grand Rapids: Eerdmans, 1981.
- McCarthy, D. J., *Old Testament Covenant: A Survey of Current Opinions*, Atlanta: John Knox Press, 1972.
- Milgrom, J., *Leviticus 1-16*,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1.
- Milgrom, J., *Leviticus 17-22*,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9.
- Milgrom, J., *Studies in Cultic Terminology and Theology*, Leiden: Brill, 1983.
- Munck, Johannes, *The Acts of the Apostles*, AB, Garden City: Doubleday, 1981.
- Murray, John,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4.
- Noth, M., *Leviticus: A Commentary*, OTL, J. E. Anderson, trans., London: SCM

- Press, 1977.
- Noth, M., *The Laws in the Pentateuch and Other Studies*, D. R. Ap-Thomas, tr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 Packer, James I., Merrill C. Tenney, and William White, Jr., 『성서대역사』, 권명달 옮김, 서울: 보이스사, 1985.
- Ridderbos, Herman N., *The Epistle of Paul to the Churches of Galatia*,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4.
- Ross, J. F., "Food," *IDB* 2, 304-308.
- Simoons, J., *Eat Not This Flesh: Food Avoidance in the Old World*,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1961.
- Wenham, G. J.,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9.
- Westermann, C., 『창세기 주석』, 강성열 옮김, 서울: 한들출판사, 1998.
- Wright, D., P., *The Disposal of Impurity: Elimination Rites in the Bible and in Hittite and Mesopotamian Literature*, Atlanta: John Knox Press, 1987.

<초록>

성서의 음식 규례와 오늘의 먹을거리

강성열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개개인의 생명과 신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음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로서, 밥상(식탁) 공동체 내지는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 간의 공동체 유대 관계를 확립시키고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과의 교통을 경축하고 갱신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음식 문화와 음식 규례는 사실 하나님의 음식 주권에 기초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온갖 음식을 섭취하였지만, 그들만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음식물 금기도 가지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 규례이다. 식물을 제외한 온갖 음식을 식용 가능한 정결한 동물과 식용 불가능한 부정한 동물을 나누고 있는 이 두 본문은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목표로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음식 규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이러한 음식 규례조차도 예수께서 이루신 만물-인간과 피조 세계 전체를 포함하는-구속의 대역사 속에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통하여 발전적으로 극복된다. 그 결과 온갖 종류의 음식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는 전통적인 음식 규례가 필요 없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장벽도

무너져 내리게 되었으며,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의 음식 주권을 확신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식사 습관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다는 사랑의 법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새로운 음식 규례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Abstract>

Biblical Dietary Laws and Today's Food Culture

Prof. Sung Yul Kang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Food is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energy in maintaining the life and physical activity of human being. As a gift given to human being by God, it establishes and strengthens the relationships between eating and drinking people. It is also used as a means to celebrate and renew the communion with God. The various food culture and dietary laws found within Israelite Community in the OT period are, in fact, based on the food sovereignty of God.

Although Israel took almost all kinds of food given to them as a gift by God, they also had diverse food taboos assisting to keep their identity as a chosen people of God. We can find

a representative instance of those food taboos in the dietary laws of Lev. 11 and Deut. 14. These two texts divide every kind of food into edible clean animals and inedible unclean animals, and contain complicated and strict dietary laws aiming at the holiness of Exodus community(=Israel).

But even these strict dietary laws of OT period had been overcome by the formation of new order defining that all kinds of food are clean within the great redemptive works of Jesus for all creation. As a result, the traditional dietary laws which divided every kind of food into edible clean animals and inedible unclean animals had become unnecessary, and the barrier which blocks between Jews and Gentiles had been destroyed. Rather, the law of love, which permits restrictions to one's own dietary practice on behalf of the spiritually weak Christians who are not so fully confident of the food sovereignty of God, became the new dietary laws for Church and Christians.